

30주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味樂의 향연’

27-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서 국가·세대 초월한 음식 선배 ‘음식명인 푸드쇼·글로벌미식존·스타셰프 다이닝’ 등 풍성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오는 27일부터 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남도음식에 꼭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중 남도 명인 푸드쇼에선 남도 음식명인의 음식을 30주년 기념으로 3천원에 맞출 수 있다. 27일 오전 10시 김봉화 명인의 집장, 낮 12시 김영숙 명인의

양금절편, 28일 오후 1시 최윤자 명인의 모시일떡, 오후 3시 임화자 명인의 육포, 29일 낮 12시 천수봉 명인의 흥어무침을 선보인다.

22개 시·군에서는 시·군 대표 음식을 관람객이 직접 맛보고 현장 스티커투표를 통해 인기 음식도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시간대별로 특산물 시식 이벤트도 진행돼 다양한 전남의 농특산물을 맛보며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시식 특

산물은 나주 배 식혜(일 210잔), 담양 유과(일 100개), 고흥 오란다(일 2천개), 무안 고구마말랭이(일 100개) 등이다.

요리 인플루언서 쿡킹쇼도 현장 라이브로 진행된다. 28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주무대에서 수요미식회로 유명한 홍신애의 김치클래스, 27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주무대에서 중국요리의 대가 여경옥(Chef Lu)의 남도 자장면을 시연하고 30명에게 특별 시식 기회를 주어진다.

30주년 기념 글로벌 미식존도 운영한다. 남도음식의 글로벌 콘텐츠화를 위해 미술랭 스타 니시무라 셰프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해 점심(정

지선 셰프), 바비큐 덮밥(남준영 셰프), 라멘(니시무라 다카히도 셰프), 파에야(오세득 셰프) 등을 만들어 선보인다.

또 반올림피자와 협업해 전남 특산품인 ‘고흥 유자, 영암 무화과’로 개발한 ‘남도 1호 피자’를 축제 기간 매일 1천800여명에게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세득 셰프의 남도음식 다이닝이 28일 남도음식체험관에서 운영된다. 1회차 점심은 남도음식 관련 사연을 사전에 공모받아 선정자에게 무료로 다이닝 집(www.namdofood.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안내할 예

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남도김밥 요리경연대회가 열린다. 남도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음식문화큰잔치 공식 누리집(www.namdof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수상작 레시피는 프랜차이즈사나 편의점과 협업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0년 성과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특별주제를 관을 운영하고 남도음식 명인관, 남도종가 음식관, 세계 미식관, 김밥 쿡킹 클래스 등 직접 맛보고 즐기는 참여형 축

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개막식 축하공연은 27일 오후 7시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시작으로 이찬원, 하이키, 박구윤, 이젤 등이 무대에 오른다. 28일 오후 7시에는 ‘정선희·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공개방송이 목포문화예술회관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초대가수로 신유, 소찬휘, 현진영, 정다경, 전종혁 등이 출연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찾는 방문객이 다양한 남도음식을 맛보고 즐기도록 막바지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전시회 ‘광주에이스페어’ 내일 막 오른다

2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애니·게임·첨단영상 등 총망라

첨단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확장현실(XR) 등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 대명사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총망라한 콘텐츠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9일 “국내 최대 규모 문화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4 광주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28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2024 광주에이스페어’는 콘텐츠 관련 전시 행사 중 유일하게 세계전시연맹(UFI), 한국전시산업협회의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전시회다.

‘IP의 변주와 다양한 콘텐츠의 탄생(Seeding IP, Digging Conten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디자인진흥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세계 30개 국가에서 400개 기업(국내 359개·해외 41개)이 503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HYBE)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바이투게더 등 소속 K팝 아티스트의 콘서트, 드라마, 다큐멘타리를 해

외 바이어에게 선보인다. 또 국내 대표 방송기업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CJ ENM이 참가한다.

해외 기업으로는 대만 타이베이멀티미디어제작협회(TMPA), 인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기술위원회(MESC), TVAGA, 홍콩의 치어스 미디어 컴퍼니(Cheers Media Company), 브라질 시리엘라 프로덕션(Seriella Productions) 등 세계 방송·애니메이션·캐릭터 기업들이 참가해 바이어들에게 콘텐츠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광주지역에서는 디자인스튜디오 버튼, 핑크엔터테인먼트, 아이스크림 스튜디오 등 38개 사가 캐릭터·애니메이션 부스를 운영한다.

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프랑스 대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쏘시스템과 공동 부스를 설치해 AI 기반 가상화 기술, 증강현실·가상현실 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는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국내·외 30개국에서 바이어 190여명이 광주를 찾는다.

또한 비즈니스 수출상담회(26-27일), 2024 광주 콘텐츠 투자유치 IR(26-27일), 한·중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교류회(27일), 투자진흥지구 팸투어(28일) 등이 잇따라 열려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경기자



보존 만료된 행정 기록물 폐기 24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직원들이 주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종이 기록물 중 기간이 만료된 각종 행정 기록물을 폐기 처리하기 위해 수집하고 있다. <광주북구청 제공>

벼멸구·호우 피해 기술 지원 총력

전남농기원, 현장기술지원반 130명 편성 운영

전남농업기술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벼 쓰러짐 피해와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24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는 9월 중순까지 폭염에 따른 고온건조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2-3세대를 경과해 추세 연휴를 전후로 대규모 발생, 전남지역 전체 벼 재배 면적 14

만8천여ha 중 1만9천여ha에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최고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전남지역 논 8천ha에서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도·시·군 전담 지도사 130명을 편성해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 지역 중 수확기에 다다른 벼는 조기 수확을 적극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은 배수시설 정비와 벼 수발아 방지를 위해 벼잎 끝만이라도 노출되도록 해주고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은 흐르는 물로 씻어 광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벼멸구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약제가 뱃대 아랫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살포해야 한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내달 1-18일 5천원만 자부담

광주시는 24일 “광견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서 기르는 개·고양이다.

지난해까지는 개에 대해서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양이까지 확대 지원한다.

개·고양이 모두 동물 등록을 마친 개체만 가능하며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접종이 안될 수 있다.

접종 희망 시민은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장치(외장형·인식표)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 예방접종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평소 2만~3만원이지만 이 기간에는 5천원만 내면 된다.

광주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백신 4천두 분량을 지정 동물병원 80여곳에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택승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며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접종과 목줄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경기자

제6회 대동 전통문화대상 공모

누구든 신청접수 환영합니다.

총 상금 30,000,000원

1995년 창립 이래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대동문화재단이 문화 나눔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로 장인(匠人)의 길에 매진하면서,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대동전통문화대상>을 제정, 수여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모를 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대동문화재단** 주관 대동전통문화대상운영위원회
후원 대동문화재단운영이사회 명예시민운영위원회

1. 명칭 대동전통문화대상
2. 시상내역
 - 대상(3명) 상패 및 부상(각 5백만 원 상당)
 - 문화유산부문 전통문화, 문화유산, 학술 분야 등
 - 미술부문 한국화, 서예, 공예, 건축, 조각 분야 등
 - 공연부문 국악, 전통극 분야 등
 - 특별상(10명) 상패 및 부상(각 1백만 원~2백만 원 상당)
 - 한우물상 한 업종에 평생을 매진하면서 전통을 지키는 장인 - 5명, 각 2백만 원 상당
 - 미래인재상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재능 있는 미래의 인재 - 5명, 각 1백만 원 상당(대학생 이상의 청·장년)
3. 시상식
 - 일시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18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 지원(신청)자격
 - 대상 전통문화유산, 미술, 공연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 창작 발표 등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괄목할 만한 공적이 인정된 자.
 - * 대상의 경우는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자천으로 접수한 자를 심의 후 수상자로 선정
 - 특별상 전통의 맥을 이으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그 가치를 구현하는 장인(匠人), 가업(家業)으로 대를 잇는 아름다운 명가(名家), 내일의 장인을 꿈꾸는 미래 인재, 개인 및 단체 등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공적조서 1부, 신청자 약력 1부,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1매, 기타 공적 입증자료(작품·사진·인쇄물·영상 등) 사본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aedongc.com
6. 접수
 - 접수기간 2024년 9월 15일 ~ 10월 15일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유료) 및 방문접수(접수서류 반환 불가) 이메일 접수 ddmh21@hanmail.net
 -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29-5(수기동, 고운하이츠 1차 2층)
 - 문의전화 062-461-1500, 010-2606-5600
7. 선정 심사 및 수상자 발표
 - 심사 대동전통문화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엄정 심사 후 수상자 선정
 - 발표 수상자는 시상식 일주일 전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